

Korean Heritage Lifestyle

**AREUM**



## Brand Story

### 아름

### 가장 한국적인

### 아름다움으로

### 일상을 가득 채우다

#### ‘아름다움’의 아름

밤하늘을 은은하게 비추는 달빛처럼,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현대적인 일상 속에 은은하고 깊이 있게 비추고자 합니다.

#### 두 팔을 동글게 모아 만든 마음의 크기, ‘한 아름’의 아름

밤하늘 가장 동글게 차오른 보름달처럼, 선조들이 유물에 담았던 풍요와 안녕의 염원을 당신의 일상 속에 ‘한 아름’ 가득 채워 선물합니다.

#### 나를 뜻하는 우리말 ‘아(我)’와 이름을 뜻하는 ‘름(濼)’의 만남

매일 모양을 바꾸며 마침내 스스로 가장 눈부신 빛을 완성하는 달처럼, 전통의 멋을 더해 가장 나다운 기품을 완성해 나가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 하늘의 달이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듯,

‘아름’은 시공간을 초월한 한국의 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빚어내어 당신의 삶을 가장 풍요롭고 눈부시게 채워줍니다.

## AREUM

### Beauty at Its Most Korean, Every Day

#### AREUM is for “areumdaum” — beauty

Like moonlight glowing softly across the night sky, our mission is to cast the extraordinary artistry of our ancestors and the value of Korea's cultural heritage in a light both gentle and profound over everyday modern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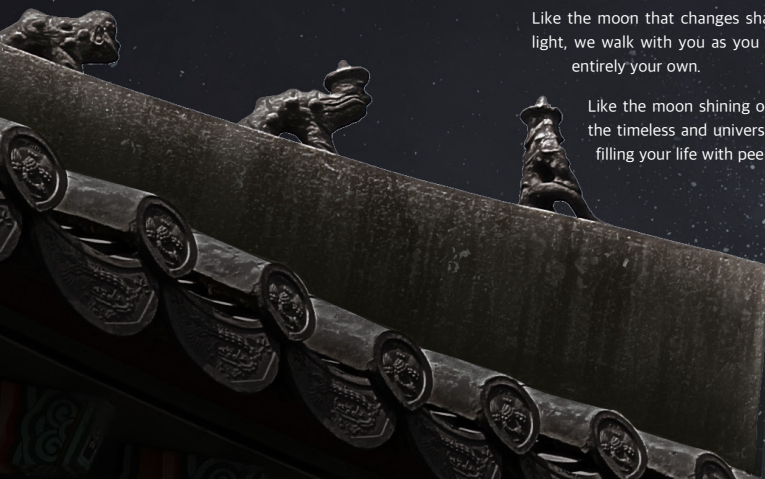
#### AREUM is for “han areum” — an armful, the measure of a heart drawn by two encircling arms

Like the full moon at its roundest in the night sky, we offer the gift of our ancestors' longing for abundance and well-being imbued in their treasures, filling your days with an armful of good wishes.

#### AREUM, where a (我), Korean for self, meets reum (濼) for fulfilment

Like the moon that changes shape each day until it completes its own most radiant light, we walk with you as you add a dash of traditional style to create an elegance entirely your own.

Like the moon shining on us unchanged for a thousand years, AREUM shapes the timeless and universal beauty of Korean art with contemporary sensibility, filling your life with peerless abundance and radiance.



Korean Heritage Lifestyle

**AREUM**







## 조선의 풍류와 시대상의 정수, 혜원 신윤복의 풍속화

The Essence of Joseon Leisure and Its Age:  
**The Genre Paintings of Sin Yun-bok**

조선 후기, 엄격한 유교 사회의 장막을 걷어내고 인간 본연의 감정과 일상의 아름다움을 가장 파격적이고 아름답게 그려 낸 천재 화가가 있습니다. 단원 김홍도와 함께 조선 풍속화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혜원 신윤복(1758~?)입니다.

김홍도가 서민들의 활기찬 노동과 소박한 삶을 따뜻한 먹선으로 그려냈다면, 신윤복은 도심 속 한량들과 기생들의 로맨스, 여인들의 은밀한 일상과 풍류를 날카롭고 세련된 필치로 포착했습니다. 특히 당대에는 금기시되던 여성을 주인공으로 적극 내세웠으며, 조선 시대 회화에서 보기 드문 화려하고 감각적인 원색(적, 청, 황)의 사용은 시대를 앞선 모던함을 보여줍니다.

그의 대표작들이 수록된 《혜원전신첩》(국보)은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을 넘어, 18세기 말 조선 사회의 복식 문화, 유희, 풍속을 완벽하게 고증하는 최고의 시각 사료입니다. 한 폭의 그림 마다 숨겨진 인물들의 미묘한 눈빛 교환과 해학적인 연출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몰입감과 세련된 예술적 영감을 선사합니다.

In the late Joseon period, one artist's genius drew back the shroud of Confucian severity to paint natural human emotions and the beauty of the quotidian with unmatched daring. His name was Sin Yun-bok (1758-?), pen name Hyewon, and he stands alongside Kim Hong-do, pen name Danwon, as one of the two great masters of Joseon genre painting.

Where Kim Hong-do rendered the vigorous labour and simple lives of common folk in warm ink lines, Sin Yun-bok captured the romances of urban men of leisure and kisaeng (professional female entertainers), and the private lives and refined pleasures of women, with a sharp and sophisticated touch. In particular, he placed women — a taboo subject in his day — at the centre of his work, and his brilliant, sensuous use of primary colours (red, blue, and yellow), rare in Joseon painting, testifies to a modernity well ahead of his time.

The Album of Genre Paintings by Sin Yun-bok (Hyewon jeonsincheop), a designated National Treasure of Korea that anthologizes his best work, is far more than a collection of beautiful images: it is the finest surviving visual record of late 18th-century Joseon society, one that perfectly captures the dress, entertainment, and customs of the times. The subtle exchange of glances and witty staging in the folds of every painting still draw the viewer in today, offering a refined source of artistic inspiration.

## 영화, 일상의 풍경이 되다: 신윤복 풍속화 라인

Masterpiece Paintings as Everyday Landscapes:  
**The Sin Yun-bok Genre Painting Line**

조선 회화의 가장 화려하고 감각적인 순간을 현대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해원 신윤복 필치 특유의 유려한 선과 고풍스러운 색감을 패브릭 위에 그대로 구현하여, 들고 걷는 것만으로도 한 폭의 움직이는 갤러리가 되는 특별함을 선사합니다. 모던한 스타일링에 유니크한 클래식 포인트를 더해보세요.

In this product line, the most brilliant and sensuous moments of Joseon painting are given new life as contemporary fashion items. The elegant lines and antique palette distinctive to Sin Yun-bok's style are rendered directly onto fabric; carry it, and this masterpiece becomes a gallery in motion. Add a unique classical touch to your modern styling.



## 풍속화 술더백

Shoulder Bag



조선 시대 풍속화 속 다양한 인물과 풍경 패턴을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톤 위에 담아낸 감성적인 술더백입니다.

This shoulder bag sets the varied figures and landscape patterns of Joseon genre painting against a subdued, refined backdrop for an evocative sensibility.

## AREUM



## 풍속화 스트링파우치 String Pouch

조선 시대 풍속화 속 다채로운 인물과 풍경을 담아내어, 정갈하면서도 세련된 한국적 미감을 전합니다.

The colorful figures and landscapes of Joseon genre painting on this pouch bring out the clean refinement of Korean aesthetics.



## 풍속화 지퍼파우치 Zipper Pouch

조선 시대 풍속화 속 다채로운 삶의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내어, 앤티크하면서도 세련된 한국적 멋을 전합니다.

Vivid scenes from life expressed in Joseon genre painting are faithfully reproduced for a quintessentially Korean charm, at once antique and sophisticated.





## 천년의 비색 위에 날아오른 영원의 학 청자 상감운학문매병

Cranes in Eternal Flight on a Thousand-Year Jade Glaze  
**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청자는 전 세계 도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비취색 빛을 품은 예술품으로 찬사받습니다. 그중에서도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청자 상감운학문매병'(국보)은 고려 청자의 정점이자 천년의 미학을 대변하는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이 매병은 S자 곡선을 그리며 풍만하게 솟아오른 어깨에서부터 아래로 부드럽게 좁아지는 완벽한 비례미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유물의 진정한 위대함은 표면을 수놓은 '상감(Inlay) 기법'과 문양의 배치에 있습니다. 도자기 표면을 파내고 흑토와 백토를 채워 구워내는 정교한 상감 기법을 통해,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을 상징하는 비색 바탕 위에 도무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구름(雲)과 학(鶴)이 새겨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학들의 움직임입니다. 둥근 원 속의 학들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원 밖의 학들은 땅을 향해 내려오도록 배치되어, 매병을 천천히 돌려보면 마치 수많은 학들이 푸른 우주 속을 영원히 순환하며 비상하는 듯한 역동적인 시각적 착시와 초월적인 개방감을 느끼게 합니다. 장수와 고고한 기품을 상징하는 학의 군무는 고려인들이 꿈꾸던 이상향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Goryeo celadon is celebrated as artworks of jade-green (bisaek) light without peer in the history of ceramics. The 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a National Treasure held by the Kansong Art Museum, stands at the summit of Goryeo celadon — a masterpiece among masterpieces that bears eloquent testimony to a thousand years of Korean aesthetics.

The vase traces an S-curve, rising to a full, generous shoulder and tapering gently downward in perfect proportion. Its true greatness, however, lies in the inlay (sanggam) technique that covers its surface, and in the arrangement of the motifs. Through this exacting technique — carving lines out of the clay body, filling them in with black and white clay, then firing the vessel — countless clouds and cranes are set against a ground of jade-green glaze symbolizing a boundless blue sky.

What makes the design remarkable is the movement of the cranes. Those within the circles fly upward toward the sky, while those outside descend toward the earth; turn the vase slowly and countless cranes seem to circle and soar forever through a blue universe in a dynamic optical effect that lends a sense of transcendent freedom. The dance of the cranes, symbols of longevity and lofty grace, brings to life the ideal world the people of Goryeo dreamed of.

## 고려의 비색, 기품을 두르다: 청자상감운학문매병 라인

The Jade Green of Goryeo, Wrapped in Elegance:  
The Celadon Cloud-and-Crane Line

국보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의 영롱한 비색 바탕과 끊임없이 비상하는 구름, 학의 문양을 모던한 패브릭 텍스처로 풀어냈습니다. 전통이 주는 고고한 기품과 정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일상 소품에 투영하여,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감성을 전달합니다. 소중한 분께 전하는 격식 있는 선물로도 어울립니다.

The luminous jade-green ground of the Celadon Prunus Vas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a National Treasure, together with its endlessly soaring clouds and cranes, is translated into modern fabric texture. This product line projects the lofty grace and quiet beauty of tradition onto contemporary everyday objects, speaking in a register at once calm yet profound — and makes a suitably formal gift for someone you value in your life.





### 운학문 텀블러/와인 백

Bottle Carrier



### 운학문 복주머니 파우치 Drawstring Pouch

전통 복주머니 형태에 은은한 비색 운학문이 어우러져, 소지품을 넣었을 때 자연스러운 볼륨감과 멋진 실루엣을 연출합니다.

The traditional fortune pouch(bokjumeoni) form meets the subtlety of the jade-green cloud-and-crane design, taking on natural volume and a graceful silhouette once filled.



### 운학문 사각 지퍼 파우치

Rectangular Zipper Pouch

유물의 원통형 실루엣을 가장 닮은 디자인으로, 일상 속 텀블러나 음료를 품격 있게 휴대할 수 있는 에코 라이프 아이템입니다.

Designed to echo the cylindrical silhouette of the original vessel, this is a sustainable everyday essential for carrying your tumbler or drink with elegance.

구름 사이를 날아오르는 학의 우아한 자태(운학문)를 깊이감 있는 딥블루 톤 직물에 담아내어 고풍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맛을 전합니다.

The elegant bearing of cranes rising among the clouds is set into a rich blue fabric with a sense of depth for a look that is both antique and refined.





## 천년의 눈물과 신비로운 울림 성덕대왕신종의 비천상

A Thousand Years of Yearning and a Mystical Resonance

### The Apsaras of the Sacred Bell of Great King Seongdeok

대한민국 경주에 위치한 국립경주박물관에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종으로 일컬어지는 ‘성덕대왕신종’(국보, 일명 에밀레종)이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인 771년에 완성된 이 거대한 청동 종은 단순히 그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신비롭고 웅장한 소리와 종 표면에 새겨진 정교한 조각예술 덕분에 세계적인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성덕대왕신종의 몸체 중앙에는 양각으로 새겨진 마주 보는 두 쌍의 ‘비천상(飛天像)’이 있습니다. 비천은 불교에서 부처님께 찬탄과 공양을 올리는 하늘의 신선으로, 서양의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종에 새겨진 비천상은 구름 위에 피어오른 연꽃 방석 위에 무릎 꿇고, 향로를 받쳐 든 채 경건하게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몸을 감싸고 하늘로 길게 뻗어 나가는 옷자락(천의)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바람을 타고 우주를 유영하듯 유려하고 역동적인 곡선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종이 한 번 울릴 때마다 이 비천상들이 천상의 소리를 타고 온 세상으로 날아올라 사람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평안을 가져다준다는 종교적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 주조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문양으로 극찬받는 통일신라 금속 공예의 정수입니다.

The Gyeongju National Museum in Gyeongju, Korea, is home to the Sacred Bell of Great King Seongdeok (a National Treasure also known as the Emille Bell), long celebrated as one of the greatest surviving bells ever cast. Finished in 771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this immense bronze bell is counted among the world's masterpieces not for its scale alone, but for a mysterious, majestic tone heard nowhere else and for the exquisite sculptural art on its surface.

At the centre of the bell's body are two facing pairs of apsaras (bicheon) in relief. In Buddhism, an apsara is a celestial being who gives praise and offerings to the Buddha — a Buddhist counterpart to the angels of the West. The figures on the bell kneel on lotus seats blooming from the clouds, holding up incense burners in reverent devotion.

The long robes that wrap their bodies and stream up into the sky are carved in flowing, dynamic curves, as though the figures were swimming through the cosmos on a living wind. Each peal of the bell carries the spiritual yearning that these apsaras might rise on that heavenly tone and fly out over the world, easing human suffering and bringing peace. Praised as the most beautiful ornamental design in the history of bell casting, the apsaras are the essence of Unified Silla metalcraft.



## 천년의 울림, 어둠 속에서 빛나다: 성덕대왕신종 라인

A Thousand-Year Resonance, Radiant in the Dark:  
**The Sacred Bell Line**

청동의 깊고 어두운 목직함과 비천상의 신비로운 실루엣을 모던한 블랙 베이스 자카드 직조 기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시크하고 현대적인 블랙 컬러 위에 은은하게 떠오르는 비천상의 유려한 곡선은 전통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합하고 트렌디할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일상에 목직하고 깊이 있는 아우라를 더하는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The deep, dark weight of bronze and the marvelous silhouette of the apsaras come alive in modern black jacquard weave. Rising gently over the chic, contemporary black, the apsaras' elegant lines prove just how hip and on-trend ancient aesthetics can be. This premium product line lends a weighty, profound aura to everyday life.



**비천상 슬더백**  
Apsara Shoulder Bag

어깨에 자연스럽게 감기는 형태감으로, 블랙이 주는 시크함 속에 성덕대왕신종에 새겨진 비천상의 매력을 품은 데일리 아방가르드 백입니다.

Wrapping naturally over a shoulder, this everyday avant-garde bag sets off the appeal of the apsara carvings on the Sacred Bell of Great King Seongdeok against stylish black.



**비천상 나들이가방**  
Apsara Bundle

깊이감 있는 블랙 원단 위에 하늘을 날며 악기를 연주하는 '비천상' 모티프를 은은하게 수놓아, 신비로우면서도 모던한 한국적 미감을 보여줍니다.

The apsara motif — celestial figures playing instruments in flight — is embroidered in subtle touches onto black fabric with a sense of depth for a Korean sensibility at once mystical and modern.



**비천상 토트백**  
Apsara Tote Bag

견고한 형태감과 정교한 문양이 어우러져 오피스 룩이나 포멀한 스타일에도 완벽하게 매치되는 프리미엄 토트백입니다.

A solid form and intricate motifs come together in a premium tote that perfectly complements office looks and formal styling alike.



풍속화 토트백  
Tote Bag



풍속화 숄더백  
Shoulder Bag



**겸장신구 솔더백**

Silk-Ornamented  
Shoulder Bag



**겸장신구 복주머니 파우치**

Silk-Ornamented Fortune Pouch





**운학문 바네파우치**  
Cloud-and-Crane Vanepouch



**비천상 바네파우치**  
Apsara Vanepouch



**겸장신구(컬러) 바네파우치**  
Ornament Motif (Colour) Vanepouch



**겸장신구(흑백) 바네파우치**  
Ornament Motif (Black and White) Vanepouch



**겸장신구 매듭백**  
Silk-Ornamented Knot Bag



**운학문 필통**  
Cloud-and-Crane Pencil Case



**비천상 지퍼파우치**  
Apsara Zipper Pouch

**겸장신구 사각 지퍼 파우치**  
Rectangular Zipper Pouch





ERCUN



@THE\_EROUN\_AREUM

[erounshop.com](http://erounshop.com)